

# Thaw Season

## 해빙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하는 법이 궁금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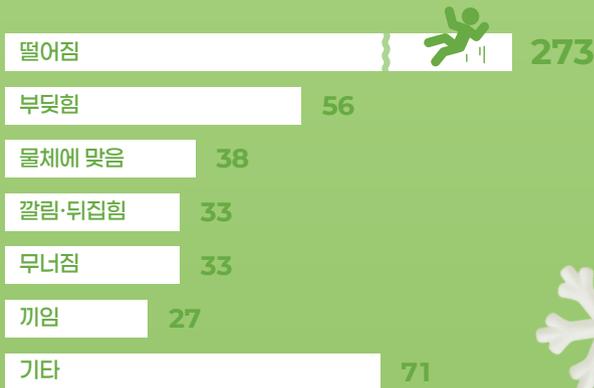
현장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

글 공주영



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지반과 구조물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,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안전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?

### 2020~24년 발생 유형별 봄철 사망사고 현황





흔히 봄의 시작이라 불리는 해빙기는 생동감 넘치는 시기처럼 보이지만, 산업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 선 긴장감이 필요한 때입니다.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

지반이 약해지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

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<2025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>에 따르면, 해빙기에 현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고는 단부와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입니다. 또한 굴착기 운용이나 흙막이 지보공 사고 역시 대지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

단부·개구부 사고는 현장의 고질적인 사고 유형이지만 해빙기에는 더 치명적입니다. 작업이나 보행 중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통로를 벗어나 단부 사이를 넘어가다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장 내 주요 개구부와 단부에 반드시 안전난간과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, 작업자 또한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여 불의의 추락에 대비하는 안전 습관을 체득해야 합니다.

흙막이 지보공 사고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해빙기 지반 약화로 구조물 자체가 붕괴하거나, 용접 작업을 위해 빔 상부에 올라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현장에서는 작업 전, 흙막이 지보공 부재의 변형이나 부식, 탈락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. 특히 빔 상부 작업 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, 아래쪽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. 방호망 설치 시에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, 안전대 부착 설비에 고리를 철저히 체결하는 등 기본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.

이와 함께 겨울철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토사가 느슨해진 굴착면의 붕괴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지반의 형상과 지층 상태는 물론 균열 여부, 지하수위 및 동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눈 녹은 물이나 빗물이 유입되어 지반을 더욱 약화시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천막을 설치하는 등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. ☺

### 해빙기 작업장

####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!

-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덮개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
-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 무너짐 방지 조치
- 굴착 전 작업 장소 및 주변 지반, 인접 건물에 대해 균열·함수·용수 및 동결 유무 등 점검
- 흙막이 지보공의 계측 결과 분석을 통한 계측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
- 굴착기에 후사경, 후방카메라 부착 등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
-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조치,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고

#### 자료 출처

고용노동부·안전보건공단, 2025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.